

도시의 건강개선과 환경 문제해결

도시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은 대부분이 20세기 중반 때의 경계선을 훨씬 넘어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수백만의 인구가, 소위 세계의 도시인들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환경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기까지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1996년 세계 보건의 날 주제로 선택한 "건강한 도시"는 이 위기를 겨냥하고 있다.

1990년에 개발도상국가의 도시에서 거주한 최소한 6억의 인구가 식량, 깨끗한 물, 그리고 주택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 인구의 과잉, 부족한 쓰레기 처리 시설, 위험한 작업 환경 조건, 오염된 공기, 거리의 폭력 등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도시 생활에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 이래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급세기 말까지는 개발도상국가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며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인들에 노출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적 배경 하에서 창안된 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한 도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조직들이 연합하여 도시의 건강을 개선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건강한 도시 프로그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도처에 있는 약 1천여개의 도시에서 도시의 건강 특히 저소득 인구 집단의 건강 증진을 모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수 많은 도시협의회가 건강과 환경에 관련되는 쟁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강한 도시"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의 참여적 "다부문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관내 전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한 도시들은 그들의 노력을 서로 연결짓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쓰이는 많은 기존의 의사소통 통로를 개발한 국가와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세계적 네트워크가 곧 출현할 것 같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른 국제연합 기관들 특히 국제연합인간세테먼트본부(UNCHS), 국제연합개발기구(UNDP),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과 공동으로 도시의 생활 환경조건을 개선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시 인구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긴급한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커가게만 내버려둔다면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압도당하여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 조건들, 예를 들면 주거, 고용, 안전한 환경까지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폭발적인 도시 성장의 시기에 도시 인구의 건강은 인간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당국자로부터 국제보건 및 개발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도전을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도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㉞

